

11/12/23

설교 제목: 여러분의 소망은 어디에 있는지요?

전하는 이: 김순배 목사

말씀: 골로새서 1 장 1-8 절

- (골 1:1)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 (골 1:2)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 (골 1:3)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 (골 1:4)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음이고
- (골 1:5)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 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 (골 1:6)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도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 (골 1:7)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 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 (골 1:8)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며 에베소 골로새 빌립보 교회와 빌레몬에게 서신을 보냈습니다.

그 중 본서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골로새 교회의 일꾼인 에바브라의 방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골로새 교회가 이단 사상들로 인해 위협을 받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복음에 반하는 이단 사상들이 교회에 분란을 초래했던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를 위협하고 있는 이단 사상으로는 유대 사상과 이방 종교 사상, 영지주의 사상, 위장된 기독교 사상 등등이 있었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원주민, 헬라 문화권에 있는 이방인, 유대인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그들은 제각각 문화적 종교적 철학적인 배경을 가지고 각자의 목소리를 내었습니다.

유대 사상에 젖어 있던 유대인 교인들은 절기, 할례, 부정한 음식으로 규정된 특정한 음식을 금하여 의식적 청결을 유지하는 유대주의적 관습을 지킬 것을 주장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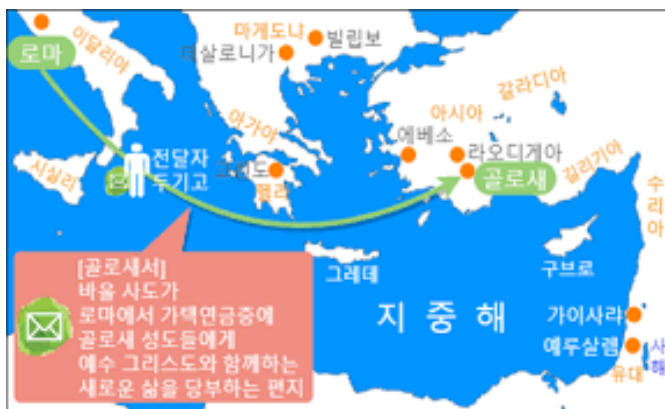
이방 종교 사상에 젖어 있던 이방인 교인들은 철학과 거짓된 속임수로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영지주의 사상에 물든 교인들은 천사 숭배나 금욕 주의 사상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위장된 기독교 사상을 가진 교인들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하신 중보자요 구원자되심을 부인하는 등 심각한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에바브라로부터 골로새 교회가 이같은 이단 사상들로 인해 위험에 처했다는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절대 구주시고 그 분만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이심을 확실하게 믿게 하기 위하여, 그리하여 이단 사상들에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성결한 신앙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게 하기 위하여 이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먼저 당시의 골로새가 처한 지리적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골로새는 소아시아 브루기아(Phrygia)에서 서남쪽, 에베소에서 동쪽으로 약 160 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소아시아에서 수리아로 가는 중요 무역로 상에 위치해 있어 동서 교통의 요충지였고 모직과 직물 공업이 발달했었습니다.

그러나 무역로가 인근 도시인 라오디게아와 히에라폴리스로 이동하는 바람에 쇠퇴의 길을 걷게 되어 바울 당시에는 작은 도시로 전락한 상태였습니다.

주민들은 브루기아 원주민들과 그리스에서 온 이주민들, 그리고 안티오쿠스 3세의 유대인 이주 정책에 의해 이주해온 유대인들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그에 따라 다양한 문화와 종교, 사상들이 혼재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안고 있는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이곳에 간 적이 없습니다.

본서와 골로새에 있던 빌레몬에게 사도 바울이 보낸 서신인 빌레몬서에 쓰여진 내용으로 보아 본 교회는 에바브라가 사도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고 세운 것으로 추정됩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 에베소에서 3년동안 사역할 때 에바브라가 빌레몬 아킵보와 함께 두란노에서 복음을 듣고 고향인 골로새로 돌아와 빌레몬과 함께 교회를 세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은 비록 자신이 직접 세우지는 않았을지라도 본 교회에 애착이 가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서신서와 같이 편지 첫 머리에 보내는 사람(수신인), 받는 사람(수취인)을 언급한 후 짧은 인사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 서신의 저자임을 알리며 자신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자라고 소개합니다.

(골 1:1)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진실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바뀐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열심히 핍박하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메섹 상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난 후 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자에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이름도 본래 사울이었으나 예수님이 지어주셔서 바울로 바꾸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난 후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을 가장 고상하게 여겼고, 자신에게 유익하던 것들을 해로 여겼으며,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그는 그리스도 한 분으로 부족함이 없었던 것입니다.

(빌 3:7)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뿐더러

(빌 3:8)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빌 3:9)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사도 바울에게 그리스도는 그의 전부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서신을 형제 디모데와 함께 썼다고 했습니다.

디모데 역시 사도 바울과 함께 로마 감옥에 있었음을 추정할 수 있는 구절입니다.

하지만 디모데가 직접 서신을 쓰는데 참여했다기보다는 함께 동역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할 때부터 동행하며 같이 사역을 했던 인물로, 사도
바울이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믿음 안에서 참 아들된 디모데'라고 불렀을 만큼
그의 가장 강력하고 헌신적인 동역자였습니다.

이어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받는 사람(수취인)을 언급하고 간단한 인사말을 곁들입니다.

수취인은 골로새 교인들입니다.

(골 1:2)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골로새에 가본 적도 없고 따라서 그곳 교인들을 만나 본 적도 없는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라고 일컫습니다.

그리고 편지의 본론이 시작됩니다.

사도 바울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 기도했고 기도할 때마다 감사했다고
말합니다.

(골 1:3)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어 그 이유를 말합니다.

에바브라로부터 골로새 교인들이 예수 안에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가지고 있다고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바울처럼, 디모데처럼, 에바브라처럼 그리스도 안에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두었고
그리스도로 충만하였습니다.

(골 1:4)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음이었

(골 1:5)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 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골 1:6)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도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복음이 온 천하에 퍼져 열매를 맺어 자라고 있었습니다.

골로새 지역도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이 열매 맺고 자라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복음이 열매 맺고 잘 자라고 있다고 본 세 가지 이유입니다.

첫째, 골로새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을 두었습니다.

이것은 복음의 근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이 죄인이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행위를 통해서가 아닙니다.

여기에 교회의 근본이 있습니다.

교회 건물이 크고 화려하고 아름다워야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인 수가 많아야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인들이 헌금을 많이 하고 헌신과 봉사를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한국 학교 등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잘 되어있는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교인들이 그들의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두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피로 하나님과 우리의 영원한 화목 조약을 맺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에 근본을 두고 있는지요?

우리는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려 피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고 권면했습니다.

(고후 13:5)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 받은 자니라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까?

둘째, 골로새 교회는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믿음에는 행함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약 2:26)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런데 그 대표적인 행함은 바로 형제 자매를 향한 사랑입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그 형제 자매를 사랑합니다.

(요일 4:20)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요일 4:21)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열매 맺고 자라는 교회라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주신 사랑으로 서로를 향한 사랑이 모든 성도를 향해 차별없이 일어날 것입니다.

셋째, 골로새 교회의 소망은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었습니다.

(골 1:5)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 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여기서 '말미암음이니'를 주목해야 합니다.

이 말은 골로새 교회의 믿음과 사랑이 '너희를 위해 하늘에 쌓아 둔 소망'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는 자신들을 위해 하늘에 쌓아 둔 소망, 그 소망을 바라보고 그 힘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을 두고 그 힘으로 모든 성도들을 사랑할 수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골로새 교회의 소망은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께 있었습니다.

그 소망이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모든 성도들에 대한 사랑을 불타오르게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사십니까?

이 땅에 소망을 둔 사람은 그리스도께 믿음을 둘 이유가 없습니다.

땅에 것에 가치를 두고 그것들을 추구하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둔 사람은 모든 성도를 사랑할 힘이 없습니다.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지 않고서는 아무런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생각하며 기도할 때마다 감사했던 이유는 골로새 교회가 그들의
참된 소망을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과 사랑을 실천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 교회가 그리고 나 자신이 골로새 교회와 같이 건강하게 복음의 열매를 맺으며 잘
자라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만약 사도 바울이 우리 교회를 본다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골로새 교회를 보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처럼 감사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믿음을 두고 있는지요?

우리는 모든 성도를 향해 사랑을 보이고 있는지요?

우리는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고 살고 있는지요?

조용히 우리 교회, 그리고 나 자신이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